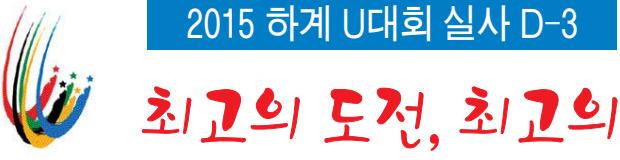


[종합·해설]

2015 하계 U대회 실사 D-3



최고의 도전, 최고의 감동 실사

▶ 빛고을의 열기 보여주자



2일 오후 전남대학교 후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5 하계U대회 유치성공기원 광주·전남대학생 연합 한마당' 행사 참석자들이 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풍등을 날리고 있다.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 광주·전남 20개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워커뉴스 jrwi@kwangju.co.kr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잔잔한 환대

성대한 환영 등 이벤트성 행사 축소

질서 지키기 등 시민 자발 참여 절실

"성대한 환영 행사보다는 잔잔한 감동과 국제 유치 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겠다."

광주시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는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FISU) 실사단을 위한 대형 환영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를 대폭 축소했다. 국빈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되 명예시민증 수여, 기념식수 등 조출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는 실사단이 최대한 실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광주가 갖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다. 또 실사단의 방문 목적인 실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실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시는 스텝판버그 FISU부위원장(스웨덴)을 비롯 루시아노 카브랄(브라질), 말립베트 라레트(남아

공), 캐밀 타머(터키),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등 실사단을 국빈급의 전으로 맞는다.

광주시는 한국 도착 순간부터 1대 1 경호·통역 요원이 배치되며 호텔 및 실사 장소 이동시마다 경찰 선도 차량이 상시 에스코트에 나선다.

U대회 개최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서는 뜻깊은 기념식수 행사가 열린다. 올해 새롭게 실사단에 포함된 루시아노 카브랄 집행위원은 광주 U대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식수를 하게된다. 스텝판 버그, 말립베트 라레트, 캐밀 타머, 히사토 이가라시 등 집행위원들은 지난해 2013년 U대회 실사 때 심었던 나루들을 보게된다. 이 자리에는 광주 시민들이 이 나루들을 얼마나 정성들여 가꿔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념식수 공간에는 "6년 후

서 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표지석도 설치된다.

시는 7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식환영만찬에서 루시아노 카브랄 집행위원에게 국제 체육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다.

시는 또 U대회 개최를 바라는 시민의 사연이 수록된 '빛고을 광주 소식'(광주시보)을 실사단에게 전달,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영희(서구 상촌동)씨는 "FISU 실사단에 띠우는 광주 어머니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 녀석이 2015년이 되면 대학생이 된다"며 "그때 U대회가 광주에서 열려 꾀부색과 문화가 다른 지구촌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빛고을에 머무는 동안 열정과 도전을 품고 있는 광주의 참모습을 눈여겨 봤다"며 "시에게 글로벌도시의 주인공으로 자랄 기회를 주고 싶은 어미의 간절함에 두손 맞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숙한 질서의식

과 준법정신을 선보여 국제도시 유치 도시로서 광주의 역량을 전달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실사단이 머무는 3박4일 동안 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안버리기, 불법간판 자진철거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했다고 보고 있다.

즉, 시민들이 민주·인권·평화도시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도시의 문화적인 자산을 뚜렷히 각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공식적인 환영만찬과 행사도 열린다. 박광태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 집행위원장과 정의화 위원장은 실사 이틀째인 7일 실사단을 위해 공식환영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광주U대회 유치 위원, 한국대학스포츠연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광주시의 유치 열기 전달한다. 같은 날 전남대 종합운동장에서는 KBS열린음악회, 실사 3일째인 8일 오후에는 환송만찬이 마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 U대회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진정성을 실사단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penfoot@kwangju.co.kr

귀막은 농림식품부

J프로젝트 예정 부지 농어업회사 설립 강행

사업자 공모 12개 회사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

농림식품부가 전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에 정지구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 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나서 이곳에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려는 전남도의 계획 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식품부 산하 한국 농어촌공사는 2일 해남군 산이·마산면 일대 간척지인 영산강 3-1지구, 산이 2-1지구(713ha)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신청한 12곳의 농어업회사 사업계획서 심의에 들어갔다.

농어촌공사는 12곳의 농어업회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이 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선정, 3일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들은 대부분 대규모 농업을 운영해 본 경험 이 있는 단체나 업체·개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에 뛰어든 것

으로 알려졌다.

애초 사업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도로와 읍배수로 등의 생활기반시설분야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12곳이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해 이를 경영하는 농어업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신청서를 냈고, 농어촌공사는 이들의 사업계획서를 최종 평가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설립은 지역 농어업인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된다"면서 "농업복합단지 형태의 수출 전진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천지구는 전남도가 45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며,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미국 트러

스(TRUSS)그룹이 이달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인 곳이다.

전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송천지구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연말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은 줄곧 밝혀 왔으나, 농어촌공사가 이미 평가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점으로 미뤄 양자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계획대로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하게 되면 전남도의 송천지구 개발계획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거나 사업규모 축소 등도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송천지구 인근에 다른 간척지들이 많으므로 사업신청자들이 굳이 송천지구의 현 부지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며 "농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사업예정부지에 관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EU FTA 타결되면...

국내 농가피해 3천억 원 안팎

자동차·가전·섬유

수출 확대 효과

GDP 2.02% 늘 듯

이번 협정에서 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양 대상에서 빠졌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는 3천억 원 안팎에 이른다. 양허 대상 품목들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국내 농가의 생산 규모가 그 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타격이 가장 큰 것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이다. 지금도 유럽산 수입이 많은 이들 품목들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전제 경제에 종합적으로 '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의 경우 뚜렷한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고가의 유럽산 수입 차·의류·화장품 등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소비자로서는 이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 GDP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가량 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5만~48만 원 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취약 부문인 농업의 경우 더 싼 값의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이 밀려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FTA로 타결로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면서 '지리적표지제'에 따라 '삼례인', '코냑'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명품 '꺽통' 단속과 처벌도 더욱 엄격해진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이다. 품질 경쟁력을 갖춘 유럽산 돼지고기, 와인, 위스키, 낙농품 등의 관세까지 없어지면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품목에서만 약 2천 2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유럽산 농산물을 싼 값에 즐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와인과 위스키다. /연합뉴스

2015 하계 U대회 실사 D-3

최고의 도전, 최고의 감동 실사

▶ 빛고을의 열기 보여주자

2015 하계 U대회 실사 D-3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행!!!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행!!!

2015년 2월 27일 예매 개시일 ~ 3월 10일 예매 종료일

749,000원

2015년 2월 27일 예매 개시일 ~ 3월 10일 예매 종료일

799,000원

광주MBC 문의번호: 062-226-6070